



바닷가제  
탕수육...  
재료는 채소  
과일·김등  
모양도 맛도  
'진짜고기'

## “소림사 음식 맛보세요”

### 청담동 채식전문식당 '베지월드'

보통 채식 하면 갖가지 나뭇잎의 소박한 밥상을 연상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문을 연 베지월드(02-516-9776)는 채식 전문식당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탕수육, 콩재워구이, 궁보 닭고기, 참치스테이크, 바닷가제 등의 육류·생선요리로 가득찬 차림표를 선보이고 있어 손님들을 의아하게 한다.

음식이 나온 뒤에는 채식 전문식당이라는 문구에 속은 것 같아 기가 막힐 정도다. 탕수육은 영락없는 탕수육 맛이고, 참치스테이크는 생선 겹질까지 붙어있어 영락없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맛과 씹는 느낌, 모양, 영양까지도 감쪽같은 야채로 만든 '가짜 고기'다.

베지월드 이라리나 사장은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손님들에게 '이곳의 요리는 모두 채소를 이용한 것'이라며 '탕수육은 버섯, 흰콩, 참치겉질은 김을 이용해 만들고, 색깔은 과일과 채소 즙을 이용해 냈다'고 설명하기 바쁘다.

이 사장은 이 '가짜 고기'의 뿌리는 1백년전 중국 소림사가 콩추로 명성을 떨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다. 무술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풀만 먹고 어떻게 힘을 쓰나'며 풀만을 토로하자 스님들이 각종 버섯과 채소, 그리고 한약초를 이용해 맛과 모양은 물론 씹는 느낌까지 똑같은 '가짜 고기'를 만들어 이들을 달래면서 비롯했다는 것.

이 비법은 대만으로 건너가 사찰음식으로 자리잡았고, 맛과 맛을 내 연화 또는 서민음식으로 개발됐다. 지금은 종교와 무관하게 대중화한 것은 물론 미국 프랑스 영국 태국 등 세계 18개국에 보급돼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로열한외과대학 이사장을 역임한 베지월드의 김대영 대표이사는 "채소고기"가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미용·건강식으로 유행해 현대인들에게 안심식품이다"고 강조하며 '채소고기'를 이용한 사찰음식이 식생활 개선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는 베지월드가 1호점이다. 채식을 통해 사찰음식을 보급한다는 김이사와 이사장의 원력으로 문을 연 베지월드는 그래서인지 초입부터 불교적 냄새를 풍긴다. 중후복장을 한 종업원들이 반기고, 향내와 명상음악이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한 가득 불교용품으로 장식한 진열장도 눈길을 끈다.

요리 하나하나에 깃든 예기도 재미있다. 길을 가던 스님이 담 넘어 집에서 어찌나 맛있게 밥에 나던지 재민 불구하고 담을 훌쩍 뛰어 넘어다 해서 붙여진 '불도장요리', 그 맑고 투명하기가 얼음, 수정같이 보이기 붙여진 '빙정림', 모양이 토끼와 흡사하여 붙여진 '토끼방' '봉숭아방' 등.

베지월드에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담심(중국식 만두)에서부터 풀코 스페뉴에 이르기까지 2백여가지 채식요리가 있다. 케익, 겨자 빵, 감자 등 간식거리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영양백백의 갖가지 도시락은 일품이다. 5천원~1만원이면 점심 한끼를 근사하게 해결할 수 있다.

베지월드는 앞으로 각 가정에서 '채소 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료와 조리된 음식을 유통판매 할 계획이다. 전국 병행일대를 중심으로 제인화하고, 사찰음식을 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요리책도 펴낼 방침이다. 다만 현재 대만에서 반조리 상태로 들어오는 채소를 국산화 하는 것과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새 메뉴를 개발해 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도광선 기자

### 인터뷰 '베지월드' 이라리나 사장

## “채식생활화도 수행이죠”

“포도당을 개발한다는 마음으로 베지월드를 시작했습니다. 불교를 사찰음식이라는 식으로 볼 통해 소개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불교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중국 사찰식 건강채식 전문식당 '베지월드' 이라리나 사장(36). 이사장의 이같은 의력은 불자들이 위한 음식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지비공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비공명, 상구불하 하회중생 정신을 받들어 많은 이들의 식생활 개선에 앞장 서 나가자 합니다'라는 문구로 장식한 광고전단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자주 논란이 되는 스님들의 공양물문제도 '채식고기'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의 유일한 불교사원은 미국 이민생활 중 효선스님을 만나면서 돌보이기 시작했다. 13살때 '육구술집이 빛나서 이웃을 맑고 밝게 비추라'는 <관음경>의 '라리나'를 법명으로 지어주시는 스님을 다시 만나면서 비로소 마음 속에 묻어두었던 불교광명을 내신 것이다.

법명을 본명으로 바꾼 이 사장은 스님의 잔 심부름부터 복잡한 서류 처리까지 도맡아 처리하면서 83년에는 정화사를 세우는데 일조했다. 또 LA에 종합무역 신내 장식회사 호보초사(Hoboch Co.)를 설립하고 중국 심양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중국·미국에 한국불교를 소개하기도 했다.



## 대중예술하는 스님들 “무대가 좋다”

잡것도 없이 해매는 사람이  
머물곳 없이 떠도는 사람이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무엇인가  
구름처럼 날려왔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은 바람이여라

(도신스님 노래 '우리 인생은 바람이여라') 구성진 가락, 삶의 무상을 여실히 나타내는 노랫말, 사발영의 의 스님이 직접 불러주는 노래가 가슴에 울림과 닿는다. 때로는 영숙한 분위기에서 듣는 장시간의 법문 못지않은 감동을 줄 때가 있다. 이렇게 불교적 정서를 대중가요로 만들어 포교하는 스님 가수들이 심진 도신 지법 지연스님 등이다.

그중에서도 은은한 선율의 멜로, 멜로로 연주되는 찬불가를 듣는 맛과 멋은 파노나 노래와는 또다른 감동을 준다. 멜로를 들고 포교한 것은 언더 나타나는 법현스님(대보사).

최근 KBS-TV 드라마 '용의 눈물'은 30%를 웃도는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 조선 개국 초기 장면에서 무학대사가 자주 나왔다. 또 멜로드라마 분장한 무학대사는 그 진지한 법문에 비해 머리는 늘 얼만큼 지리하고 '선사' 이미지를 느낄 수 없게 비대한 몸이 다소 어색했다. 마침 비슷한 때에 실제 스님이 직접 스님역을 맡았던 '전설의 고향-검룡소'와 비교했다. 여기서의 노스님역으로 정해스님(법어사 금강암)이 출연했는데 스님이 스님역을 맡았으니 당연히 자연스러웠다.

가요, 연주, 연기 등 대중을 위한 예술활동으로 중생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가고 포교방식으로 삼고 있는 스님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불용가수의 선두주자적인 심진스님과 도신스님, 심진스님(현 등사)은 '그대를 위한 시' '백광번뇌' 등으로, 도신스님(구룡사)은 '나그네' '무상' 등의 구성진 불용가수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국악을 반주로 해 더욱 불교적 정서가 호소력을 주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도신스님은 '통곡' '용서, 그리고 구도'를 타이틀로 한 2집 앨범에서는 신촌블루스기 반주를 맡는 등, 보다 대중화를 위한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특유의 저음과 구성진 목소리의 지법스님(재주 북사)은 거리공연을 많이 하고 있다. 초파일이나 어버이날에는 TV를 통해 특집공연까지 갖고 있는 지법스님은 '모놀로그식의 일방적 법문'보다 3분동안 하는 소리법문이 훨씬 전파력이 클 때도 있다'고. 반야심경 금강경 부모은중경 아미타경 등 경전과 선사들의 선시를 쉽게 풀어 노래를 만드는 스님은 6집을 준비중이다.

7월7일 부산 KBS홀에는 무려 4500명이 모인 야간법석이 벌어졌다. 스타강사가 초청된 것일까, 이날의 주인공은 지연스님(말암 선우사). 스님은 '지혜롭게 사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울호르는 듯한 법문과 중간중간 '심불하게 하소서' 등 노래로써 좌중을 압도했다. 노래와 레크리에이션 지도로 부산 경남 일대에 널리 알려진 지연스님은 '지연스님의 찬불가요' 등 2개의 노래테이프를 나누어주며 음성포교에 나서고 있다.

이들 가수스님(?)들은 한결같이 '어렵고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보다 가깝게 하는 방편으로써 노래포교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일반인들이나 외국인들에게는 스님이 노래한다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불교에 대한 호기심은 물론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

7월26일 무더위의 정점에서 대보사에서는 불자가족모임 음악법회가 열렸다. 주최자는 '법로스님'으로 알려진 법현스님. 스님은 불교행사 군법당 교도소 등 스님의 선율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간다. 무에 빠진듯 심혈을 기울여 멜로로

- 원월 연습 안해도 NG없이 연기 척척
- 정허 88년 극단 '하늘개인날' 창단
- 지법 소리법문 거리공연...6집앨범 준비
- 도신 2집 신촌블루스 반주 '대중화노크'
- 심진 '그대를 위한 시' 등 국악가요 보급
- 법현 첼로들고 교도소등 어디든 포교
- 지연 노래와 레크리에이션 '관객압도'

연주하는 스님의 모습에 관객들은 일반 연주자에게보다 더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

중앙대 연극영화과에서 공부하다 문예창작과로 전과했으나 연기계의 꿈을 버리지 못해 입산후 수행하다 지난 88년 극단 '하늘개인날'을 창단한 정해스님. 스님은 '원효대사' '민달리' 등 불교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주인공 원효대사와 지산스님 역을 맡기도 했다. 지난 봄에는 정통연극 '육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를 공연해 호평을 얻었다. 정해스님은 40여편의 연극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TV 드라마 '삼국기'에서 자장을 시로, '김구'에서 스님역을 맡는 등 활발한 연기활동을 펼치고 있다. 92년 부산연극대 대상, 93년 전국연극대 최우수남자연기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다.

신촌 불원사는 불교정통의식 '영산재'로도 유명하지만 그 사 하층에는 예로부터 연극팬이 영화팬이 놀이패들이 모여사는 문화촌이다. 또 불원사는 초파일엔 스님들끼리 곡본을 쓰고 연기를 했을 정도로 연극과 관련이 깊은 곳이다. KBS 1-TV의 일일 연속극 '당신이 그리워질때'나 SBS-TV 대하드라마 '일찍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친화하는 스님으로 나온 원월스님(봉원사 부주지)을 기억할 것이다. MBC-TV '제5공화국'에도 나온 원월스님은 연인이 따로 필요없고 NG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해스님과 원월스님은 'TV의 엄청난 위력을 생각한다면 화면에 나오는 스님의 모습이야말로 불교를 상징하기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시연하는 일이라면 크고 작은 연을 떠나 화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의욕을 보인다.

타고난 '끼'를 바탕으로 노래와 연기로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이같은 스님들의 문화활동은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라는 가치아래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직도 보수적인 많은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스님들의 이러한 대중예술활동을 꺼려하는 것도 당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비디오·오디오가 보편화되고 있는 첨단화된 현대사회에서 재가는 물론 승가자체의 의식도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고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예술활동이 무조건 극한받고 안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오히려 불교에 해가 된다는 비판도 있다. 깊은 수행으로 밀착한 스님 대중예술활동은 직업화, 상업화로 흐를수도 있다는 것이 일부의 조심스러운 우려이다.

'본질에서 벗어나고자 않는 모든 것들은 기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기능으로는 중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한 중진스님의 지적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경숙 기자